

## 12월의 돈가는 2,650~2,750원/kg 전망

11월 돈가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예상돈가는 2,700원/kg~2,800원/kg이었지만 이보다 200원/kg~300원/kg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소비 정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고기 소비 정체에다가 출하두수 증가, 출하중량의 증가 때문에 돈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돈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가 도축 두수를 증가시키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위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냉동육 가격이 500원/kg~1,000원/kg까지 하락하였고, 냉동육 채고 증가와 도축 두수를 올릴 수 없는 육가공 업체들의 현 여건하에서 돈가 재상승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국내 돈육 소비가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돈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출하두수가 11월보다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11월 돈가가 연중 최저라는 판단, 냉동육 덩핑 판매가 11월 중순경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12월 돈가는 전월 예상과 같은 수준인 2,650원~2,750원/kg으로 전망된다.

일본 수출이 다소 주춤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등·안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후지는 3PCS나 4PCS 대신에 1PCS로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수출 단가 하락 및 냉동육 국내 판가 하락으로 인해 현 저돈가하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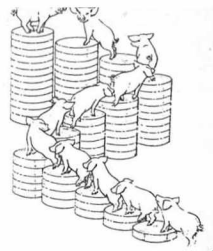
에서도 가공업체의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정소비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적정돈가는 2,700원/kg~2,900원/kg이라 생각된다.

이 돈가하에서는 농가들도 적정 이윤이 보장될 것이고 가공업체도 이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고돈가로 인해 국내 가공업체는 시련을 겪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돈가로

인해 가공업체의 판매구조가 바뀐 것도 사실이다.

즉, 냉동육 판매비율을 줄이고 생고기 판매비율을 높힌 것이다. 이는 국내 가공업체가 생존을 위해서는 생고기 판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일본의 돈육 가공업체와 거의 유사한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고기는 냉동육과는 달리 판매 즉시 소비자들이 품질을 평가하는 관계로, 웅취가 나는 슷돼지나 마블링이 없는 원료돈은 외면당하고 만다. 따라서 생고기 판매비율이 증가하면서 국내 육가공업체는 농가별 원료돈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별 원료돈 가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인 등급제와 최종고객인 소비자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선 상기 2가지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양동**



## 국산 · 수입육 소비둔화 '비상'

**돼** 지고기 소비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예상한대로 국내 산이든 수입육이든 모두 소비악화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내산은 산지 가격부터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육은 여전히 채고 과잉에 따른 저가판매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산 삼겹살 등 선호부위가 처지는가 하면 판매가격 역시 일부 업체들이 저가 판매로 돌아서면서 유통질서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다소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 일본 수출량이 그동안 저조하다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 또한 김장철, 연말연시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소비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일본 바이어들이 국내 산지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를 내려달라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국산 삼겹살 kg당 유통가격도 일부 브랜드의 경우 kg당 5천원의 유통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금회전과 채고소진을 위해 일정 물량을 저가에 유통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풀이된다.

수입육 유통시장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 미국 등 그동안 돼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지고기 주력 국가들에서 수입된 것은 판매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반면, 네델란드산 수입육은 그나마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수입육 삼겹살의 경우 브랜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브랜드의 경우 콘테이너, 또는 톤당 3천원대에 형성되는 것도 있을 정도다.

이와 함께 수입육 전지의 경우 kg당 3천원대를 나타내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kg당 유통가격이 2천원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채고 역시 증가되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소비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소비확대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연시 성수기에 가서도 소비가 현 상태에서 크게 좋아질 이유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실제 체감시기는 내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소비둔화에 대해 "서민층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다"며 주 소비층의 가계사정이 소비둔화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돈**